

FoMo



Vol.35
www.fomo.or.kr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Forced Mobilization

2025
하반기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Content

『FoMo』 제35호는 역사관의 개관 1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소식지의 앞 뒤를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앞표지에서는 '역사관 개관 10주년' 기사를, 뒷표지에서는 '광복 80주년'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FoMo

역사관 10주년과 함께 한 얼굴들 “포모네컷”	03
---------------------------	----

역사관 개관 10주년 기념

제10회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 기억의 1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으로	04
뒤안길에 새긴 이름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안세홍 사진가 공동기획전	06
사진가와 직접 소통하는 아티스트 TALK & 도슨트 TOUR	07
역사관 전시 10년을 돌아보다	08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증유물 도록 「기억」 발간	10
여러분의 기억이 모두의 역사가 됩니다 - 기억을 너머 모두의 역사로...	11
어린이 청소년 대면 & 비대면 교육 - 아이들을 위한 교육, 강제동원 역사에 한층 더 가까이	12
똑똑! 역사관 왔습니다	14
세계 한인의 날, 한글날, 독도의 날 - 10월의 기념일 손 끝에 담다	15
UN평화축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포모 스텐실 에코백 만들기' 부스 - 역사관, 지역축제 속으로!	16
박물관 어울림 교육한마당 - 〈별 헤는 밤〉: 무드등 만들기 체험	18

함께 만드는 역사관

Mini Interview 제1기 포모기자단 활동기 - 새로운 시선으로 일제강제동원의 역사를 담다	20
전시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견학	22

특집 1

2025 부산근현대역사관 특별기획전 - 부산의 보물섬 영도	24
2025년 역사관 소식지 FoMo만족도 조사	26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발행일 2025년 12월 5일 통권 제35호
발행인 심규선
편집인 박민석 편집위원 하태현, 반선영, 김정원
기획·편집 김정원 디자인 디자인크레파스 주윤경
홈페이지 www.fomo.or.kr

FoMo

Vol.35
www.fomo.or.kr

2025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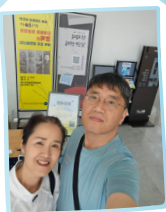
우리 역사관은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는 친환경 용지와 공기를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개관 10th 기념



역사관 10주년과 함께 한 얼굴들 “포모네컷”

2015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개관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역사관과 함께한 사람들이 기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포모네컷' 사진 부스를 역사관 한쪽에 마련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저마다의 이야기와 개관 10주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더했다.



김성길 님



김철우 님



김상일 님



송지선 님



성민희 님



배수영 님



정장미 님



김인숙 님



제10회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기억의 1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으로

피해지원국 유족·연구팀 김현목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가 처음 열린지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2016년 8월 11일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온 위령제는, 올해까지 참석인원이 약 4,200명에 달하며 재단의 대표 추모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위령제는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형식으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의 마음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합동위령제 헌화식 전경



「광복 80주년 글짓기대회」
수상자 이현지 학생의 작품 낭독

지난 9월 29일, 오랜 장맛비가 그친 맑은 가을하늘 아래 『제10회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의 막이 올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위령제 역시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부산으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서울 시청 두 곳에서 위령제를 분산 개최하였다. 그리고 강원 지역 유족을 위해 춘천시 평생학습관에 생중계 장소를 마련하여 지역적 제약을 넘어 더 많은 유족과 시민이 함께 추모의 뜻을 나눌 수 있었다.

올해에는 특별히 전국합동위령제 1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특별 사전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제1회부터 제10회(2016~2025년)까지 전국합동위령제의 행사 포스터를 전시하여, 지난 10년간 이어온 추모의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부산: 역사관 1층 울림의방, 서울: 서울 시청 8층 다목적홀)



추모탑 앞에서 헌화하는 유족

공식 행사에서는 「광복 80주년 기념 글짓기대회」 초·중·고등학생부 산문 우수상 수상자인 이현지(인천 초은중학교) 학생이 직접 단상에 올라 작품을 낭독했다. 미래 세대의 목소리로 전해진 낭독은,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재단은 지난 10년간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추모의 뜻을 이어온 유가족과 시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억의 1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앞으로도 강제동원의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일에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위안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존엄은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삶과 인권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가슴에 그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 『뒤안길에 새긴 이름』展 도입부

뒤안길에 새긴 이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안세홍 사진가 공동기획전

역사관 전시교육팀 장민성

역사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오랜 시간 기록해 온 안세홍 다큐멘터리 사진가와 함께 공동기획전 『뒤안길에 새긴 이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중국의 낯선 땅에 남겨진 조선인 여성 13명의 삶을 통해, 잔혹한 역사의 뒤안길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은 존엄과 기억의 흔적을 마주하게 했다. 피해자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담은 흑백사진과 생전의 일상을 포착한 기록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단어 속에 묻혀버린 개인의 존재를 다시 불러내는 사진가의 시선을 보여준다.



전시장 벽면을 채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초상
중앙의 인물은 배삼엽 님(1925년생, 경상남도 하동군 출생)으로,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고통과 침묵의 시간을 상징한다.



박대임 님(1912년생, 충청북도 진천군 출생)이 1957년 중국임직
증명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실제 증명서가 함께 전시

전시는 '버려진 시간', '떠나지 못한 영혼들', '세대를 넘어 기억하기' 등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사진가는 20여 년간 중국 현지를 오가며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피해자들이 간직하고 있던 기록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흑백의 이미지 속에 담긴 피해자들의 주름진 얼굴과 손, 그들이 생활하는 낯은 방의 풍경을 통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하며, 관람객들이 피해자가 살아온 시간과 마주하게 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허가입적증서(中華人民共和國許可入籍證書)' 유물과 이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병치한 연출은 '피해자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단순한 전시품을 넘어 관람객들이 피해자의 경험을 공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전시는 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억의 연대'이자, 과거의 고통을 오늘의 성찰로 잇는 자리였다. 안세홍 사진가가 오랜 세월 동안 카메라로 기록해 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이제 전시장 속에서 관람객의 시선과 만난다. <뒤안길에 새긴 이름>은 망각을 넘어 기억으로, 기록을 넘어 공감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사진가와 직접 소통하는

아티스트 TALK & 도슨트 TOUR

『뒤안길에 새긴 이름』展은 사진가 안세홍이 직접 전시 해설을 진행하며 관람객과 깊이 소통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매주 목요일 진행한 ‘아티스트 토크 & 도슨트 투어’는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안세홍 사진가는 참여자들에게 사진 촬영의 배경과 현지 취재 과정, 그리고 피해자들을 만났던 당시의 기억을 생생히 들려주었다. 오랜 세월 카메라를 통해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기록해 온 사진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설을 넘어, 사진 한 장 한 장이 품고 있는 시간의 무게와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게 했다.

참여자들은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과 손짓, 그리고 그들이 남긴 공간을 바라보며, 사진가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의 공기를 느꼈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의 촬영 과정과 피해자들의 남겨진 흔적을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전시장이 깊은 침묵과 공감의 분위기 가득 찼다.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피해자들의 초상



전시해설을 하는 사진가 안세홍

사진가가 직접 마주한 피해자들의 삶과 증언을 통해 참여자는 ‘기억을 함께 이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후반에는 질의응답과 자유 관람이 이어졌으며, 참여자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전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상을 나누었다. 한 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록과 예술, 그리고 기억을 잇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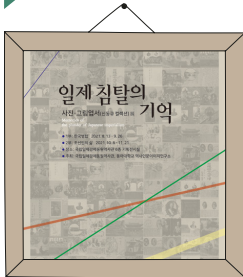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역사적 상처를 마주하고, 예술을 통해 공감과 성찰을 확장한 뜻깊은 자리로 남았다.

역사관 전시 10년을 돌아보다

역사관 전시교육팀 장민성

2016~ 기억을 모아 길을 연 첫 5년, 우리가 함께 만든 시작입니다. 2020	2016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사라진 강제동원 피해자들 8. 11.~9. 30. 역사관 첫 특별전으로, 만화를 활용한 쉬운 이해 구성 국채보상운동,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10. 6.~11. 30.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초청 전시 우토로 남겨진 사람들의 노래 12. 10.~2017. 5. 21. 재일조선인의 차별과 인권 사각지대 문제를 조명
2017년 4번의 전쟁, 아물지 않은 상흔 6. 12.~12. 3. 제국주의 전쟁이 한반도에 남긴 아픔을 다룬 전시 군함도- 미쓰비시 군간지마 8. 14.~11. 30. 다큐멘터리 사진가 이재갑 초청 전시	2018년 돌아와요 부산항에 9. 18.~12. 30. 부산항에서 국외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삶을 소개한 전시 진실과 정의, 그리고 기억 10. 26.~11. 1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진실 규명 과정을 조명한 전시
2019년 민화로 보는 3·1운동의 단상 3. 5.~4. 30. 한국민화협회와 함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전시 우리 역사의 물결- 태극기 4. 11.~6. 30.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동전시	할머니의 내일 10. 8.~10. 22. 나눔의 집과 공동 기획한 전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돌아봄 죽음의 태국-버마 철도 5. 12.~12. 9. 태국-버마 철도 건설을 통해 강제동원의 실상을 조명한 전시

2021년



**일제 침탈의
기억**

8. 13.~1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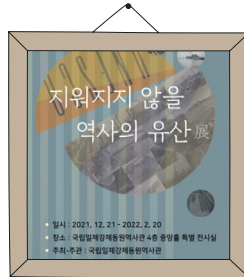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와
공동 기획



**독립기념관과 함께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10. 28.~2022. 1. 25.

국가보훈부가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자료를 활용한 전시



**지워지지 않을
역사의 유산**

12. 21.~2022. 2. 20.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근대산업
시설 7곳의 강제동원 실상을 조명

2021~

기억을 나누며
확장한 또 다른 5년,

미래로 나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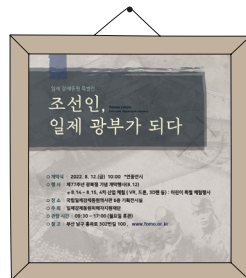
2022년



**그림으로
되살아난 민족혼**

3. 1.~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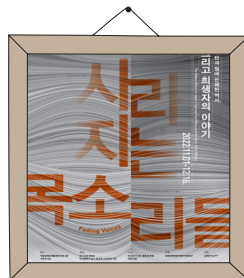
역사적 장면을 생생히 담아 독립 정신을
재조명한 독립기념관의 순회 전시



**조선인,
일제 광부가 되다**

8. 13.~2023. 3. 26.

광산 노동의 실상과 조선인의 삶을
재구성한 전시



**사라지는
목소리들**

11. 1.~12. 16.

강제동원 피해자 및 가족 26명의
목소리를 전달한 전시

2024년



**기억을 걷는
시간**

2024. 9. 27.~2025. 2. 28.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족의 경험을 다룬 전시

2023년



또 다른 수탈

1. 20.~3. 19.

한반도 동물 수탈을 다룬
겨울방학 특별전



일상의 풍속

9. 26.~12. 10.

일본이 억압하고 왜곡한 전통 풍속과
새로 강요한 풍속을 함께 다룬 전시



**우리는 기억합니다-일제강제
동원 희생자를 추모하며**

9. 16.~2024. 2. 29.

캘리그래피 작가 55명과
시인 10명이 참여한 추모 전시

2025년



**귀환-돌아온,
남겨진, 그리고...**

8. 11.~10. 31.

해방의 의미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조명

도록발간

기억



기증유물도록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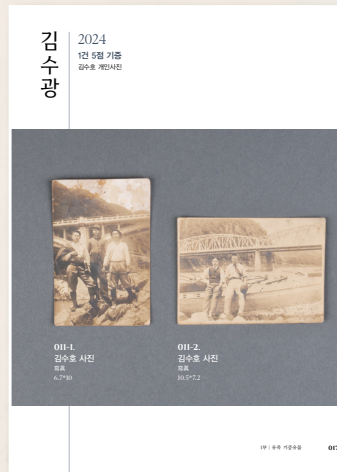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게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증유물 도록 「기억」 발간

역사관 유물홍보팀 김민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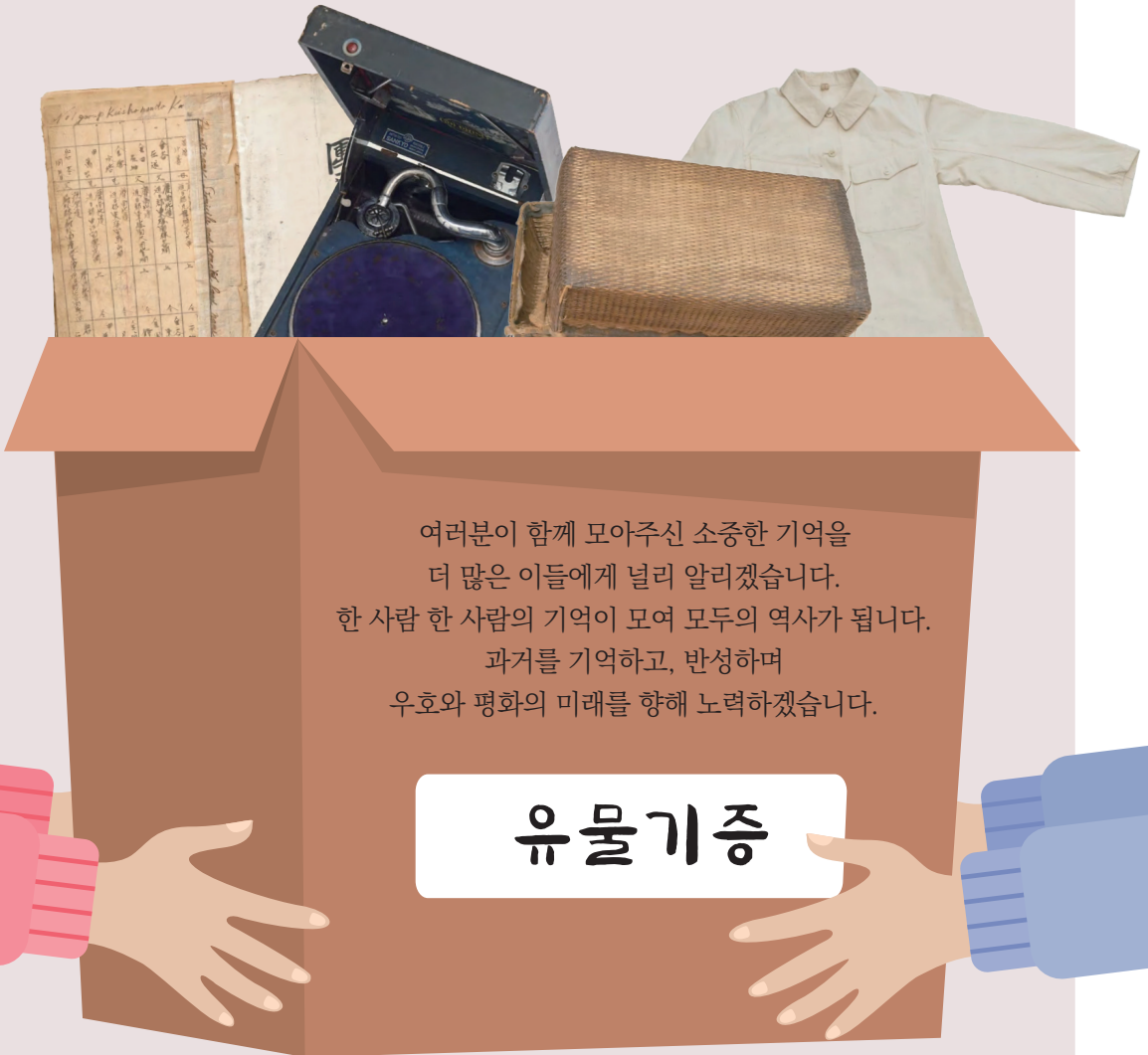
역사관은 기증유물 도록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도록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증된 일제강제동원과 일제강점기 관련 330여 점의 유물과 자료를 수록했습니다. 아홉 분의 유족이 아버지의 기억을 함께 나눠주셨고,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 한 분이 어렵사리 모으신 귀한 자료 300여 점을 기증해주셨습니다.



유물기증

여러분의 기억이 모두의 역사가 됩니다.
기억을 너머 모두의 역사로...



여러분이 함께 모아주신 소중한 기억을
더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 모여 모두의 역사가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며
우호와 평화의 미래를 향해 노력하겠습니다.

유물기증

“물지 마시고, 기증해 주세요.”

일제 강제동원 및 일제강점기 관련 자료 기증 문의 **051-629-8614**



어린이·청소년 대면 & 비대면 교육 아이들을 위한 교육, 강제동원 역사에 한층 더 가까이

역사관 전시교육팀 정민경

2025년은 광복 80주년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개관 10주년을 함께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한 해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관 교육프로그램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았을지, 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본다.

박물관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역사관 대면 교육프로그램은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총 다섯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와인병을 활용한 무드등, 석고부조 소녀상, 태극기·키링 만들기 등을 할 수 있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참가자들이 일제강제동원의 네 가지 유형을 알아보는 것부터 독립운동과 박물관이라는 공간의 이해를 돕는 교육까지 여러 주제를 망라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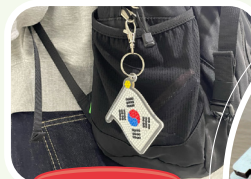
태극기 키링을 만드는 손길



새로운 프로그램 구성

여름방학 시즌에 맞추어 한 달간 새로운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강제동원의 의미에 대해 먼저 교육을 들은 후, ‘찰랑찰랑 태극기’, ‘시를 담는 가방’, ‘내 손안에 부관연락선’ 3종의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만들기는 각각 태극기 열쇠고리 만들기, 예코백 색칠하기, 부관연락선 배 모형 만들기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이 다양한 교구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에는 약 3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강의 주제에 맞는 활동 완성품을 손에 쥐고 뿌듯하게 역사관을 떠났다.

찰랑찰랑 태극기 교구



내 손안에 부관연락선 교구

교통 편의를 위한 ‘포모버스’ 운영

특히 올해에는 역사관에 대한 접근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 시내 학교 중에서 역사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와 단체를 대상으로 ‘포모버스’를 운영하였다.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여 작년보다 더 많은 학교와 단체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면교육

별 헤는 밤	일제강제동원 네 가지 유형을 배우고 무드등 만들기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와 독립운동을 배우고 태극기 네임태그 만들기
내 책상 위의 소녀상	소녀상 석고부조를 만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알아보기
출발! 역사관 탐험대	박물관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역사관 견학하기

비대면교육

다시 쓰는 방구 아저씨	동화 '방구 아저씨'를 통해 강제동원 역사 알아보기
내 책상 위의 소녀상	소녀상 종이인형을 만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알아보기
긋어, 보자	스크래치 보드 활동을 통해 노무동원 알아보기
역사관 미리보기	교재를 활용해 강제동원 역사를 배우고 퀴즈 풀기
모바일 체험 활동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전시 체험 활동지(초/중/고급)
똑똑! 역사관 왔습니다	자기주도적 역사관 상설전시실 연계 체험 활동지



상설전시 연계 활동지 「똑똑! 역사관 왔습니다」

‘똑똑! 역사관 왔습니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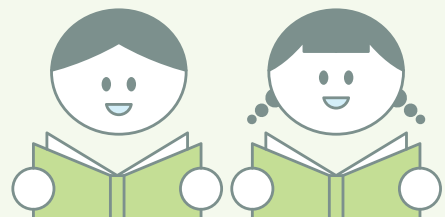
올해는 역사관 상설전시실 연계 활동지 ‘똑똑! 역사관 왔습니다’를 개발하여 학생 관람객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겨냥한 활동지로 학생들이 상설전시를 관람하고 동시에 활동지를 풀며 자기주도적으로 전시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재이다. 스티커 붙이기, 퀴즈 풀이, 편지 쓰기 등 다양한 요소를 수록하여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을 훨씬 수월하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상설전시실 연계 활동지는 역사관 4층 로비 또는 상설전시실 입구에서 만날 수 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역사관에서는 비대면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은 원거리나 여러 이유로 역사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학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종이 소녀상 제작, 팝업북, 스크래치 보드 활동 등 교구재들을 희망하는 곳으로 직접 보내주고 있어 교사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내년에도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와 학생들에게 먼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DUCATIONAL PROGRAM



국립일제강제동원 똑똑! 역사관 왔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상설전시실 연계 활동지

활동지와 함께 역사관 상설전시실을 둘러보며,
스티커를 붙이고, 퀴즈를 풀다 보면 일제 강제동원 역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상설전시실 연계 활동지
『똑똑! 역사관 왔습니다』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층 로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활동지 속 다양한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똑똑, 역사관에서 만나요!



활동지 자세히 보기



10

세계 한인의 날, 한글날, 독도의 날 월의 기념일 손 끝에 담다

역사관 유물홍보팀 김정원

2025년 10월에는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연휴, 한글날, 대체공휴일의 긴 연휴가 있었다. 10월의 달력을 들여다 보니, 세계 한인의 날, 한글날, 독도의 날 등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한 기념일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월의 기념일, 손 끝에 담다」 행사는 이런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한인의 날'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동포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날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강제동원 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강제동원은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이민자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늘연달 아흐레 '한글날'

한글날은 한글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음력 9월 26일,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고 위축되어 있던 때에, 민족정신을 되살리고 복돋우기 위해 조선어연구회가 '가가날'을 제정한 것이 한글날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 민족주의 국어학자를 비롯한 소수만이 가가날을 기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28년에 가가날을 한글날로 바꿔 부르게 되었고, 한글날을 양력 10월 9일로 확정한 것은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였다. 1946년부터 한글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비로소 전국적으로 한글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되었다.



'독도의 날'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아름다운 섬이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여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 이 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면서 기념하기 시작했다.

이번 「10월의 기념일, 손 끝에 담다」 행사는 우리 곁의 기념일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작은 손 끝으로 의미를 담아보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손 끝에서 만들어진 작품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념일에 대한 역사와 역사관에서 보낸 시간이 오래도록 남기를 바란다.



UN평화축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포모 스텐실 에코백 만들기’ 부스

역사관, 지역축제 속으로!

역사관 유물홍보팀 김정원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역사관 개관 10주년, 부산남구청 개청 50주년과 UN창설 80주년이 함께하는 뜻 깊은 해이다. 이를 기념해 부산 남구 평화공원에서는 세계 문화와 평화를 널리 알리는 『제27회 유엔평화축제』가 열렸다.



UN평화축제 역사관 부스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모습

역사관은 유엔평화문화특구*의 일원으로 축제에 참여하여 지역민들을 만났다. 역사관 10주년을 기념한 포모 디자인으로 참여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10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이틀간 남녀노소, 외국인 등 약 600여 명의 참여자가 부스를 방문해 스텐실 에코백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역사관은 지역민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평화를 향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역사관은 일상의 공간 속에서도 시민들이 역사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예정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유엔평화문화특구란?



부산 남구 일원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UN기념공원이 있는 곳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부산 남구를 세계 평화와 자유수호의 성지로 특화하고, 평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인근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유엔평화문화특구로 지정

관련기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UN기념공원·UN조각공원·평화공원·문화회관·유엔평화기념관·부산문화회관·부산예술회관·부산박물관

UN평화축제 역사관 부스를 다녀간 사람들

김유현(81세)

오늘 처음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캐릭터가 아주 마음에 들고, 이런 활동을 해보니 마음이 후련해진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고, 역사관도 방문해보고 싶다.



낭타짚탄트(25세, 미얀마 경성대 대학원생)

미얀마를 알리는 부스로 축제에 참여했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서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잘 체험했다. 아직 역사관을 방문해보지는 못했는데 오늘을 계기로 꼭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김영우(60세)

많은 행사 중에서도 특히 역사관 행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에 비슷한 체험을 해봤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분들을 생각하며 진행한 체험이라 조금 더 뜻깊은 체험이 된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행사에도 참여해보고 싶다.



조성훈(20세, 자원봉사자)

대학생활 중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오늘 행사에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도와 드리면서 보람찬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또 활동하고 싶습니다.



유행선(60세)

우리가 보고, 겪고 배운 것이 있어서 일제강점기라는 말만 들어도 코끝이 찡해진다. 계속되는 역사 왜곡 속에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고 에코백 만들기 체험은 다른 곳과 달리 역사 체험이기에 더욱 뜻깊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송민주(22세, 자원봉사자)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이번 봉사활동을 신청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해주시고, 즐겁게 체험하고,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활동하고 싶습니다.



황정순(79세)

UN평화축제 역사관 부스 체험이 재미있었고,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번 체험을 기회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람을 꼭! 하고 싶다.



이다윤(6세, 대연자연유치원)

가족과 함께 참여했어요. 체험이 너무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역사관도 새로 알게되었는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도 가보고 싶어요.





박물관 어울림 교육한마당

〈별 헤는 밤〉: 무드등 만들기 체험

역사관 전시교육팀 정민경

지난 11월 8일 토요일, 부산박물관 야외마당에서
부산 지역 소재 16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모여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박물관 어울림 교육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올해도 이 뜻깊은 행사에 현재 역사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면 교육프로그램인 무드등 만들기 〈별 헤는 밤〉으로 역사관 부스를 준비했다.



운영 프로그램

번호	기관명	체험명	대상	인원제한
1	부산박물관	무드등 만들기 (별 헤는 밤)	초·중·고등학생	20
2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3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4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5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6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7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8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9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10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11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12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13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14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15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16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17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18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초·중·고등학생	20

운영 시간표 *본행사: 별도 안내

구분	시간	체험명	대상
1회차	13:00-13:30	무드등 만들기	초·중·고등학생
2회차	13:30-14:00	무드등 만들기	초·중·고등학생
3회차	14:00-14:30	무드등 만들기	초·중·고등학생
4회차	14:30-15:00	무드등 만들기	초·중·고등학생





완성품을 자랑하는 어린이



별 헤는 밤
무드등 교구



박물관 어울림 교육한마당 역사관 부스 참여자들의 모습

총 4회차에 걸쳐 운영한 이번 행사에 역사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참가자가 줄지어 부스를 방문했다. 본격적으로 체험에 들어가기 전, 간단하게 강제동원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내용들을 떠올리며 무드등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제작에 있어서 자유도가 높은 활동이라 주로 그리는 나비, 꽃뿐만 아니라 부산의 바다 전경 등 참가자들의 개성이 유리병 위에 다채롭게 펼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참여하는 참가자들도 무드등을 직접 만들어 집을 장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 <별 헤는 밤> 체험은 주로 아이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부모님과 성인들의 이목도 끌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Mini Interview 제1기 포모기자단 활동기

새로운 시선으로 일제강제동원의 역사를 담다

역사관은 국민의 시선으로 일제강제동원 역사를 담아 전하기 위해 '제1기 포모기자단'을 선발·운영했다. 포모기자단은 역사관의 전시와 프로그램, 시설뿐 아니라 일제강제동원에 관한 현안, 강제동원지 등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카드뉴스와 블로그 기사 등을 작성하여 역사관 SNS의 새로운 얼굴로 활약했다. 역사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역사관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 더 열린 역사관, 더 가까운 역사관으로 다가가겠다.



김가영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자단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일제강제동원역사들을 알아갈 수 있었던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처음으로 제작했던 우키시마 호 폭침 사건 관련한 카드뉴스였습니다. 역사관을 방문하고 처음 봤을 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내막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후 구술기록 등의 자료를 통해 카드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작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고민이 들어가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몰랐던 역사를 덕분에 알게 되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내 주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재미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요즘에, 접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알아야 할 사건과 기억들을 다루는 경험은 무척이나 의미 있었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기자단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보고서나 인터뷰, 책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특히 구술 기록을 보면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데도 제대로 된 사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만이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길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얻어가는 것이 많은 활동이었고, 역사관의 기자단이라는 것이 부듯했던 활동기간이었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부산의 대표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원덕

예전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이번에 포모기자단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독립기념관, 제주도 다크투어리즘 등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역사관이나 유적지를 많이 다녀보았는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전국에 딱 하나이고, 정말 잘 조성되어 있어서 기본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방문했을 때에 비해 요즘에는 관람객도 조금 늘었고 외국인들도 많이 생겨서 기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방문했던 서대문형무소나 독립기념관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관람객 수준에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모기자단 기사 읽기

역사관 온라인 홍보채널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포모기자단 여러분!
고마워요



오다슬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의 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제 강제동원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강제동원을 함께 기억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공통의 자세일 것입니다. 활동을 돌아보며, 제가 가진 생각을 충분히 담아내고 공감을 얻었는지, 또 역사관의 기자단으로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올 한 해 강제동원에 대해 깊이 배우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계자분들과 홍보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활동한 포모기자단 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은서

2025년에 시작한 포모기자단이 벌써 하반기로,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기사 작성을 하며 초반에는 기사 작성 경험이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관에서 관련 교육도 시켜주시고, 점차 여러 번 기사 작성을 하다보니 적응을 하고 12월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활동하며 많은 점이 기억에 남았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광복 80주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10주년 관련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8·15 광복이 80주년이라는 뜻깊은 의미도 지니고 있고, 역사관에서 한 행사 중 규모도 크고 의미도 깊었다는 생각이 들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8월 11일 개막식에 참여하였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방문해주신 것 같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전시 중에서는 특히 '구술증언'을 위주로 된 점이 인상 깊었고, 피해자 분들의 개인 사진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사진 작가분과 함께 전시를 준비하셔서 그런지, 다른 전시들보다 이러한 점들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사를 작성할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더 다양하고 역사관에 도움되는 기사를 작성하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기사 작성을 하며 역사관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되고, 보다 많은 분들이 제 기사를 보시고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방문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박물관·부산근현대역사관에 다녀온 전시해설사들의 이야기

전시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견학

역사관 유물홍보팀 안송이

봄과 가을이 부쩍 짧아져 아쉬움을 더 한다. 가을이 아닌 ‘갈’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2025년의 가을에 역사관 전시해설사(Docent)들은 보수교육을 위해 유관기관 견학을 다녀왔다. 역사관은 전시해설사를 모집한 이래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설사 교육은 역사관 관람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부산박물관과 부산근현대역사관을 방문하여 학예사와 전시해설사의 전문 해설을 들으며 전시해설 소양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먼저 부산근현대역사관을 방문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건물 외관을 보존하고 내부를 새로 단장하여 개관한 본관은 건물 자체로도 부산의 근현대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부산근현대역사관을 관람하는 역사관 전시해설사들



부산박물관 특별전 『거장의 비밀』展 관람 후 단체사진

권주련

도슨트 활동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답사입니다. 선진지를 방문해 전문가들에게 전시 기법이나 학예 연구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즐겁고, 다른 도슨트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답사에서는 부산박물관의 특별전 <거장의 비밀>을 관람했습니다. 이전에 개인적으로 한 번 전시를 관람한 적이 있었지만, 해설을 들으며 다시 둘러보니 그때는 놓쳤던 보석 같은 디테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창순

처음으로 도슨트 답사에 참여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소풍 전날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 역사관에서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짧은 이동이었지만,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또다른 재미였습니다. 부산근현대역사관은 10여 년 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새 단장 후에는 처음 방문했습니다. 옛 한국은행 건물이 가지는 역사와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고, 개항장과 무역항으로서의 부산의 역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앞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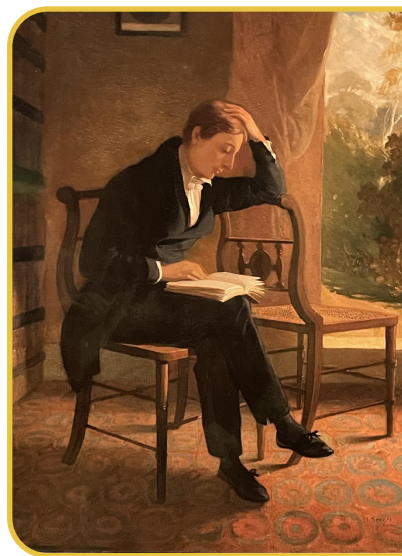
황성울 학예연구사의 전시해설과 함께 상설전시를 관람한 뒤, 발걸음을 옮겨 기획전시실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부산근현대역사관의 기획전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이곳에서 '부산근현대역사관 전시기획'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시 주제를 정하고 유물을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한국은행 시절의 금고, 카운터, 승강기 등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스토리를 더하며 전시 동선을 구상하는 전시기획 단계의 고민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부산박물관이었다. 이곳에서는 영국 국립초상화 미술관과의 교류기획전 『거장의 비밀 : 셰익스피어부터 500년의 문학과 예술』전이 열리고 있었다. 전문 전시해설사의 안내로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제인 오스틴, 버지니아 울프, 바이런 등 거장의 초상화와 친필원고, 희귀 초판본 등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전시해설을 듣기 위해 몰린 수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유명 작가들의 일화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해설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전시해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이 전시 속 이야기에 몰입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도록 돕는 다리와 같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관 전시해설사들은 더 깊이 있고 생동감 있는 해설로 관람객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역사관 상설전시해설 안내

시간 : 오전 11:00, 오후 14:30
장소 : 역사관 4층 로비 (도슨트 데스크)
인원 : 선착순 20명



〈거장의 비밀〉 전시 관람

박혜송

답사로 부산근현대역사관과 부산시립박물관을 다녀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부산근현대역사관에 있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엘리베이터입니다. 60년대에는 최고급이었으나, 현재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스토리가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전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았습니다. 전시의 기획과 연출 단계를 직접 볼 수 있었고 학예연구사 선생님의 전시 기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윤서

정말 즐거웠던 답사였습니다. 다녀온 모든 답사와 시간이 행복했지만, 그중에서도 부산근현대역사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본관 건물은 그 자체로 부산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유물이자 유구였으며, 건물로서의 의미를 최대화하여 입체적인 관람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실 내부도 건물 자체를 보존하고 존중하는 구조였던 점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부산근현대역사관 학예사 홍성을

일제의 대륙진출 교두보였던 부산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많은 수탈 기구가 밀집한 최대의 침탈지 중 하나였고, 한국전쟁의 대한민국 임시수도, 1960년대 이후 산업 부흥의 기지, 부마항쟁 등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를 거쳐왔습니다. 부산은 아직도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건물은 1929년 일제가 설립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던 건물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져 서구 양식이 도입되던 당시의 건축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이 건물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본관 건물은 대한민국 1세대 건축물인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그대로 살려 운영 중입니다. 부산근현대역사관은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된 부산의 원도심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부산의 근현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시 내용 역시 일제강점기 부산을 통한 일제의 수탈부터 부산의 민주화운동까지 부산의 근현대사 굴곡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시는 물론 유명 지역 카페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살아있는 역사의 장소인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부산의 근현대사를 보고 느끼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산근현대역사관



역사관 전시해설사에게 기획전시
준비 과정을 설명하는 홍성울 학예사

홍성울 학예사의 한마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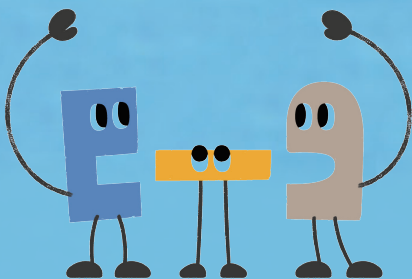
부산근현대역사관 전시도 구경 오세요!

2025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기획전시 『부산의 보물섬, 영도』展을 개최합니다.

영도는 언제나 바다 위에 고요히 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단단히 새겨져 있습니다.

영도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긴 세월 수없이 많은 이야기로 새겨졌던 섬의
새로운 이야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니

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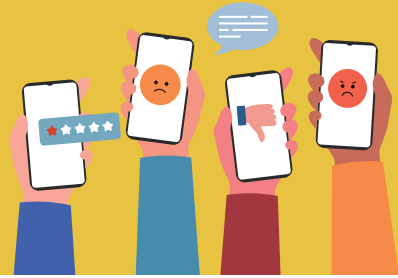
모니

부산근현대역사관 심볼마크를 캐릭터화한 것입니다.
코니는 '현대(Contemporary)', 모니는 '근대(Mordern)',
위니는 '창(Window)'의 합성어입니다



2025년 역사관 소식지

FoMo만족도 조사



Q. 1

경품 응모와 추첨, 경품 발송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 미 기입하셔도 설문에 참여 가능하며, 경품 응모에서는 제외됩니다. 기입하신 개인정보는 경품 제공에만 이용하며, 경품지급 완료 후 파기합니다.(입력 예시 : 010-0000-0000)

Q.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Q. 3

귀하의 연령대는?

- ① 20대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Q. 4

귀하의 거주지는?

- ① 서울 ② 경기 ③ 인천
④ 대전 ⑤ 대구 ⑥ 울산
⑦ 광주 ⑧ 부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세종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Q. 5

소식지 FoMo 구독기간은?

* ④번 답변자는 ⑥-1 질문으로 이동, ①~③ 답변자는 ⑥-2 질문으로 이동)

-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
③ 가끔 본다
④ 보지 않는다

Q. 6-1

소식지 FoMo를 보지 않는 이유는?

- ① 소식을 알지 못했다.
② 정보가 많지 않다.
③ 재미가 없다.
④ 구독하지 않는다.
⑤ 기타

Q. 6-2

소식지 FoMo를 구독방법은?

- ① 역사관에서 발송 받는다.
② 온라인(홈페이지, SNS, 카카오톡 채널 등)
③ 역사관 비치용
④ 기타

Q. 7

소식지 FoMo에 대해 만족정도는?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주요 소식을 담아 연 2회 발행하는 소식지 『FoMo』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만족도조사의 결과는 보다 유익한 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역사관 소식지
만족도 조사

우편발송 시 주소 : 부산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담당자 앞

Q. 8

소식지 FoMo가 재단·역사관의 정보와 소식을 파악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Q. 9

현재 기사의 글자 크기에 대한 생각은?

- ① 적당하다.
② 더 커져야한다.
③ 조금 줄어도 된다.

Q. 10

2023년부터 소식지 FoMo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 횟수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 ① 만족한다
② 계간 발행(봄, 여름, 가을, 겨울 연4회) 선호
③ 연간 발행(연1회) 선호

Q. 11

2025년 소식지 FoMo에서 지면을 확대했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중복선택 가능)

- ① 현재 구성에 만족한다.
② 유족지원사업 관련 내용 확대
③ 다양한 특집기사 수록
④ 역사관 관람객 후기
⑤ 재단·역사관 사업 소식 홍보
⑥ 국내외 강제동원지 탐방
⑦ 기타

Q. 12

소식지 FoMo는 재단과 역사관의 사업소식, 특집기사 등을 담고 있는데 2025년 소식지에서 관심 있게 읽은 부분은?

- ① 전국합동위령제, 추도순례 등 유족지원사업
② 광복 80주년, 개관 10주년 기념 전시·교육·행사 등 문화사업
③ 사업 참여자 인터뷰
④ 일제강제동원·일제강점기 관련 특집기사 (아사지노 비행장 건설 등)
⑤ 도슨트, 자원봉사자, 근로장학생 등의 후기
⑥ 기타

Q. 13

소식지 FoMo에 신설했으면 하는 콘텐츠 또는 개선사항, 좋았던 점 등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FoMo



Vol.35
www.fomo.or.kr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Forced Mobilization

2025
하반기

광복80주년



9 773091 773009
ISSN 3091-7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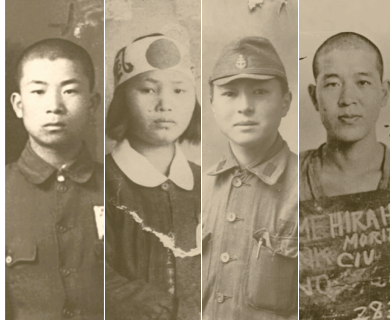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Content

『FoMo』 제35호는 역사관의 개관 1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소식지의 앞·뒤를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앞표지에서는 '역사관 개관 10주년' 기사를, 뒷표지에서는 '광복 80주년'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찾은 빛’ 야외행사 태극기 손도장 찍기



광복 80주년 기념! 강제동원 사진전



폰테고원 통신센터

광복 80주년 기념

광복 80주년, 우리의 특별한 기록	03
광복 80주년 &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귀환』 - 해방 이후 조선인들이 겪어야 했던 ‘돌아옴’의 의미	04
광복 80주년 &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귀환』 - 연계 특강 「해방과 귀환, 그 뒷이야기」	06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 한국광복군이 되어 ‘다시 찾은 빛’	08
‘빛을 따라간 용기’ 조국 광복을 위해 용기를 낸 4인의 이야기	10
광복 80주년 기념! 글짓기 대회 - 일제강제동원, 우리 가족과 마을의 이야기	11
광복 80주년 기념! 강제동원 사진전 - 강제동원 희생자의 진정한 광복을 염원하며	12
2025년 상반기 국외추도순례 - 유족 대학생들과 함께, 일본 전역을 따라간 기억의 여정	1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5년 하반기 국외추도순례 - 눈물이 왈칵, 늦었지만 이제라도 불러봅니다, “아버지”	18

특집 2

아사지노[浅茅野]비행장 건설에 희생된 피해자의 유해, 그 실마리를 찾아서	22
--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발행일 2025년 12월 5일 통권 제35호

발행인 심규선

편집인 박민석

기획·편집 김정원

홈페이지 www.fomo.or.kr

편집위원 하태현, 반선영, 김정원

디자인 디자인크레파스 주윤경

FoMo

Vol.35
www.fomo.or.kr

2025

하반기



우리 역사관은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는 친환경 용지와 공기를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귀환선

광복 80주년, 우리의 특별한 기록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2025년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 기억을 미래세대와 나누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다시금 일깨우는 해이다. 재단과 역사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조국 해방의 기쁨을 널리 알리면서 동시에 해방된 조국에서도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슬픔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번 소식지에 그 뜻깊은 현장을 함께 한 사람들을 기록하며, 우리는 이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이어가고자 한다.

광복 80주년과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관은 특별전 『귀환』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귀환 여정을 따라가며, 해방 이후 조선인들이 겪어야 했던 ‘돌아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자리였다.

「귀환」 전시장 전경.

4층 기획전시실을 가득 채운 공간 속에서 관람객은 귀환의 길을 따라 걸으며,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마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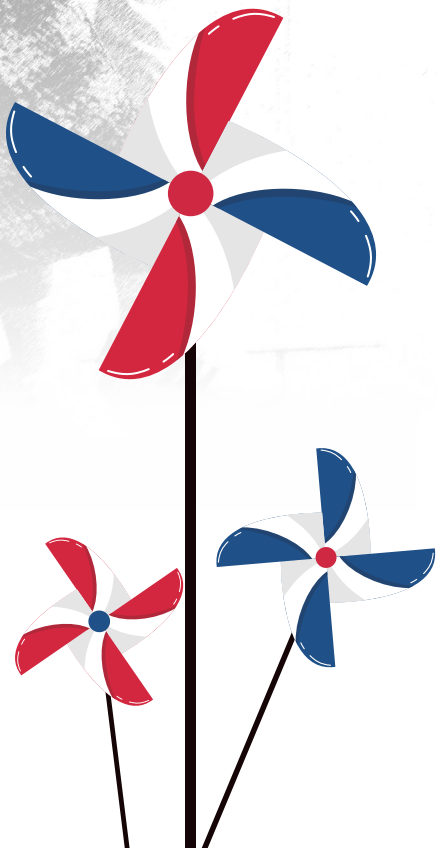


광복 80주년, 역사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귀환』 해방 이후 조선인들이 겪어야 했던 ‘돌아옴’의 의미

역사관 전시교육팀 장민성

전쟁터와 공장, 낯선 땅에서 해방을 맞이한 수많은 조선인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귀향길에 올랐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 속에서도 귀환의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누군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귀국선과 열차, 도보로 이어진 지난한 여정 끝에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잃어버린 가족, 무너진 터전 그리고 다시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었다.

전시는 귀환의 과정을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보여줬다. 관람객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강제동원지에서 맞이했을 해방의 순간과 함께 귀환길에 함께 올랐다.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귀환자의 규모와 송환 정책, 귀향 중에 겪었던 어려움, 돌아온 뒤 삶을 이어가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과 기록을 통해 전달했다. 특히 당시를 증언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술 영상과 시청각 자료들이 관람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전시 공간은 피해자들이 돌아가서 다시 삶을 영위해야 했던 공간인 ‘집’을 모티브로 설계했다. 벽면에는 피해자와 가족사진, 귀환 경로 지도, 당시 문서와 편지 등을 배치하여 관람객이 한 사람의 귀환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연출했다. 전시장 내 텍스트를 최소화하여 관람객 스스로 피해자들의 경험을 공감해 볼 수 있게 했고, 안내 자료를 통해 전시 감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람객이 각자의 속도와 감정으로 전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초상 앞에 선 가족 관람객.

세대를 이어 마주한 얼굴들 속에서 ‘기억의 귀환’은 조용히 연결된다.



『귀환』 전시의 입구 전경.

바다를 향한 영상과 함께 시작되는 이 공간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수많은 이들의 귀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의 개막식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직접 전시의 문을 여는 ‘유족 참여형 개막식’으로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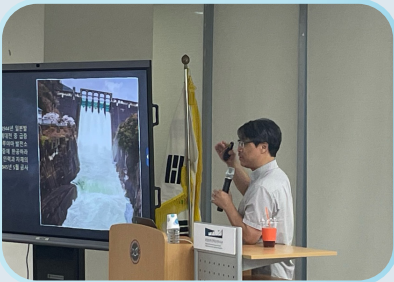
유족이 직접 전시의 문을 연
‘유족 참여형 개막식’ 장면

피해자 유족 다섯 분이 자신의 초상사진을 전시장에 걸며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 『귀환』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 돌아와서도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이들과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 전시는 그 모든 귀환을 기억하고자 했다. 유족들의 퍼포먼스는 ‘귀환의 길’이 단순히 과거로 향하는 ‘돌아감’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기억의 여정’임을 상기시켰다. 『귀환』의 관람객들이 ‘귀환의 길’이 개인의 서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역사이자 현재임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그리고 역사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전 『귀환』을 역사관 4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역사관에서는 특별전 『귀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전을 관람하러 역사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계 특강 〈해방과 귀환, 그 뒷이야기〉를 함께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은 특별전 개최기간 동안 총 세 번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해방 후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귀환 실태와 그 시대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강연의 세부적인 주제와 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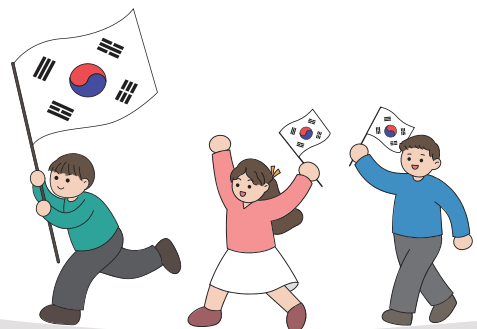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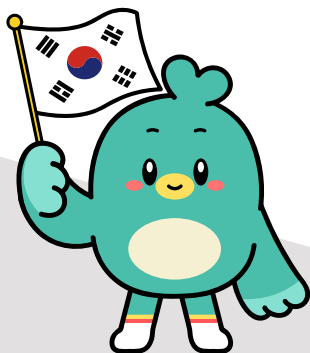


지층(地層)의 기억을 더듬다:

조선에서 나고야까지 징용의 현장 따라

다큐멘터리 사진가, '겹겹 프로젝트' 대표 안세홍

이 강연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실제로 징용되었던 현장의 사진을 공유하며 곳곳에 대한 강제동원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갔다.





지속하는 삶, 남겨진 상흔 생존자가 구술한 강제노동의 기억

구술사 연구자,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 최정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이야기 외에도 유의미한 구술을 이끌어 내는 방법, 그리고 구술을 채록하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이 강연을 통해 강사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서 들었던 당시 경험에 대한 구술을 생생하게 전달해 청강생들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광복 후에도 피할 수 없었던 강제동원 피해의 연속성: 여전히 가려진 귀환 및 모국 정착 과정에서 가중된 제2, 제3의 피해

소피아대학교(上智大) 교수 이연식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국외로 끌려간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루었다. 그리고 조선인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에 머물렀던 일본인들의 이야기와 조선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이 겪었던 차별 등 광복 이후의 상황들을 다각도의 시선으로 전했다.



이번 특별전 연계 특강 <해방과 귀환, 그 뒷이야기>는 강제동원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늘 기억하려는 열정 있는 청강생들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청강생들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전방위적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징용이나 꿈 많던 소녀들의 희생들이 잊히지 않도록 항상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등의 감상을 남기기도 했다. 2026년에도 역사관은 이곳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주제와 알찬 구성의 강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광복80주년 기념행사 한국광복군이 되어 '다시 찾은 빛'

역사관 유물홍보팀 김정원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일제는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을 탄압했다. 임시정부는 일본의 탄압을 피해 중국의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활동했고, 1932년에는 중국 충칭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총사령관 지청천, 총참모장 이범석)'을 창설한다.



'다시 찾은 빛' 야외행사 태극기 손도장 찍기

한국광복군은 1945년 8월,
미국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와 힘을 합쳐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기 위해 군사훈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광복군은 독자적인
한글무전암호(W-K Korean Code)를 제작해 무전훈련에 돌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15일, 일제가 항복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한다.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는 것은
실패하게 되었지만, 한글무전암호는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의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로 남았다.



1. 광복절 OX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모습
2. 추모탑의 비밀암호를 확인하는 가족들
3. 내가 그리는 광복,
태극기 바람개비 프로그램 참가자
4.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



역사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3일간 '다시 찾은 빛' 행사를 진행했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한국광복군이 되어 역사관 구석구석에 있는 체험부스를 돌며 비밀암호를 수집했다. 참여자들은 한국광복군이 사용했던 한글무전암호표를 이용해 암호를 해독했고, 미션을 완료하면 '빛의 씨앗' 기념품을 받을 수 있었다. 행사 기간 동안 역사관은 하루종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관람객들로 붐볐다. 역사관 전 층을 오가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비밀암호를 해독하는 가족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여름 땀을 흘리며 7층 추모공원의 추모탑까지 모든 부스를 완주한 뒤 비밀암호를 조심스럽게 말하던 가족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번 행사는 3일간 1만여 명이 방문하며, 역사관 개관 이후 가장 많은 찾은 행사로 기록되었다. 역사관은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보답하기 위해,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광복 80주년 기념 ‘빛을 따라간 용기’ 조국 광복을 위해 용기를 낸 4인의 이야기

역사관 유물홍보팀 김정원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중 조국 광복과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용기를 낸 4인(김경석, 김준엽, 김학순, 이학래)의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부채 교구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앞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포모(FoMo)’ 캐릭터 색칠하기 도안으로, 뒷면에는 4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노무동원 피해자로, 해방 후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 유
족회를 결성하여 수많은 강
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일
본을 상대로 싸웠다.



김경석

1926~2006

학도병으로 강제동원 되었다
가 탈출한 이후 대한민국임
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 되어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 이후
에는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김준엽

1923~2011



일본군 '위안부' 피해 증언자
로, 선생의 용기 있는 증언을
기억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
부' 기림의 날을 제정했다.



김학순

1924~1997

포로감시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해방 후 일본에는 피해
자로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
하고, 연합군 포로에게는 가
해자로서 사죄하며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로
평생을 살았다.



이학래

1925~2021



광복80주년 기념! 글짓기 대회

일제강제동원, 우리 가족과 마을의 이야기

피해지원국 유족·연구팀 이규희



재단은 9월 13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글짓기 대회는 광복 80주년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귀환 80주년을 기념하여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대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초·중·고 및 대학생·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일제강제동원 관련 ‘우리 가족 이야기’, ‘우리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운문과 산문 분야로 나누어 접수 받았다. 전국 각지의 다양한 연령층(10~80대)에서 총 209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높은 관심 속에 공모를 마감하였다.

문학평론가·작가·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초·중·고 부문>에는 고등학생 백세빈 학생의 ‘숨겨진 존엄함을 위하여’, <대학생 및 일반 성인 부문>에는 김효순의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이름, 순이’가 대상으로 선정 되었다. <초·중·고 부문> 우수작 수상자인 중학생 이현지 학생의 ‘그날의 쉼소리, 마지막 침묵’은 2025년 일제강제동원 전국합동위령제에서 낭독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 심사를 마친 이승하 심사위원(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의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잊힌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에 관련된 우리 선조의 아픔을 되새겨볼 수 있게 한 이번 글짓기 공모전의 취지는 참으로 바람직하다. 내년에도 일제강제동원을 주제로 한 글짓기 공모전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상을 맡은 이원범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글짓기 대회가 “단순한 창작의 장이 아니라, 역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참여의 장”이었다고 말하며, 기억을 지키고 미래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및 일반 성인 부문> 수상자 단체 사진



<초·중·고 부문> 수상자 단체 사진



광복80 주년 기념! 강제동원 사진전 강제동원 희생자의 진정한 광복을 염원하며

피해지원국 유족·연구팀 송수진

‘광복 80년: 강제동원 희생자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2일 까지, 역사관 6층 기획전시실에서 ‘광복 80년: 강제동원 희생자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주제로 「광복 80주년 기념 일제 강제동원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사진전에 이어 부산에서 그 의미를 잇는 연장 전시로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는 광복의 환희가 있었던 그날로부터 80년이 지났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완의 광복이 남아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남긴 사진과 기록, 그리고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진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보이는 노란색 벽면을 채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옛된 얼굴은 그 시대의 상황을 전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전시 공간에는 군인, 군무원, 노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강제동원의 다양한 형태와 그 실상 등을 보여주는 사진이 전시되었다. 일본과 남양군도, 사할린 등 각지의 광산과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노동했던 조선인들의 고된 삶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사진전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나열하는 전시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존엄을 복원하려는 기억의 공간으로 기획하였다. 특히, 피해자 유족의 증언 내용 및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포토월 사진으로 구성된 코너를 함께 마련하였다.

단순히 역사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억을 잇는 공간으로 확장하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한 회복과 진정한 광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재단의 메시지는 많은 관람객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 문제, 그리고 법적·제도적 해결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들의 실질적 명예 회복과 배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을 통해, 이번 사진전은 단순한 역사적 회고에 아닌 현재진행형의 사회적 메시지로 확장되었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진정한 광복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황군이 된 조선인들

일제는 조선인 징병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1940년대 전선이 확장되면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자 조선인 동원이 불가피해졌다. 일제는 조선인들이 전선에서 일본군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황민(皇民)화 교육을 강화했다.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를 시작으로 1944년부터는 징병령에 따라 조선인을 강제 징병했다. 한반도를 포함해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역으로 동원됐고, 대다수는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됐다.

징병

조선인 징병은 1944년부터 시행됐는데 일제는 조선인 징병하기 위해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병역법(兵役法)을 개정했다. 대상자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는 기류제(基流制)를 시행하고, 징병 기피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징병제를 통해 1944년과 1945년에 각각 육군 4만 5000명과 해군 1만 명씩을 동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패전할 때까지 해군 1만 명씩을 동원한 조선인은 이보다 많은 20만 9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별지원병

특별지원병은 1938년 일본 육군의 특별지원병제에서 비롯됐다. 특별지원병은 징병에 불응하고, 실제로는 지역별 할당과 유족의 지원에 단지 형식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빈번했다. 학도지원병은 선동·회유, 관공서와 경찰의 협력에 90%가 지원서에 사형할 정도였다. 대상자(전문학교 재학 이상)는 수용소에서 군사 훈련과 사상 교육을 받았고, 중징학도·학도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내 직업장에서 징집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통치 수속 육군 약 2만 1000명 노역했다. 특별지원병제도에 의한 통치 수속 육군 약 3000명이었다. (학도지원병 포함), 해군 약 3000명이었다.



재단은 앞으로도 강제동원의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며,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광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진정한 광복은 과거를 잊지 않는 기억에서, 그리고 그 기억을 미래로 잇는 실천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번 사진전은
'기억과 공감'을 통해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2025년 상반기 국외추도순례 출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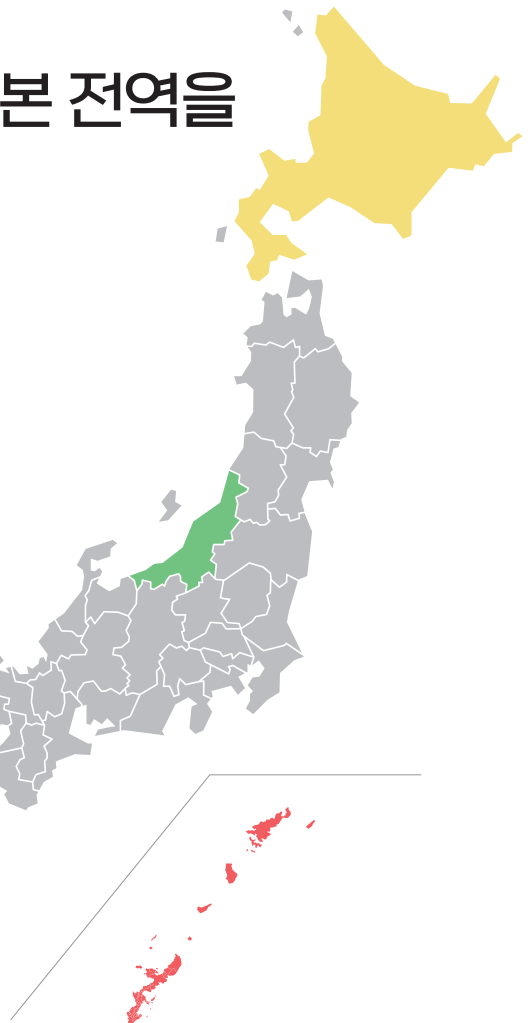
2025년 상반기 국외추도순례

유족 대학생들과 함께, 일본 전역을 따라간 기억의 여정

피해지원국 유족·연구팀 김영기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6박 7일간, 총 7명의 유족 대학생들과 함께 일본 홋카이도, 니가타현, 야마구치현, 오키나와현을 순례하며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들의 아픈 역사를 되새겼다.

- 홋카이도
- 니가타현
- 야마구치현
- 오키나와현





2025년 상반기 국외추도순례 유족간담회



조세이탄광 갱구 입구(야마구치현)



슈마리나이 강제노동박물관(홋카이도)



구해군사령부호(오키나와현)

이번 순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일 항쟁기위원회 시절 추도순례를 시작한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대학생 유족이 주체가 되어 참여한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청년 세대는 현지 강제동원 유적지와 위령비에서 헌화하며 선대의 희생을 기리고, 세대를 잇는 기억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다.

탄광의 어둠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위령비 앞에서, 그들이 남긴 숨결은 지금도 바람에 스며 있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젊은 세대가 선조의 고통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역사는 비로소 현재가 되었다.



도유코·소다유코 갭(니가타현 사도섬)

순례단은 홋카이도 강제연행·강제동원 추도비, 니가타현 사도섬 제4소아이료터,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추도광장, 오키나와현 평화기념공원 한국인 위령탑 등 강제동원 희생지와 위령비를 찾아 헌화식과 추도식을 진행했다. 각 지역에서는 현지 관계자 및 일본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과거사 인식의 차이를 나누고, 화해와 평화의 의미를 모색했다.



헌화식1(홋카이도 강제연행·강제동원 추도비)



현화식3(오기나와현 형화기념공원 한국인위령탑)



추도식(야마구치현 장생탄광 추도광장)



현화식2(니가타현 사도섬 제4소아이료터)

특히 참가 대학생들은 “지난 역사가 눈앞에 있고, 우리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잊지 않고 전하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단은 이번 순례를 통해 젊은 세대가 강제동원의 역사와 희생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짧다면 짧은 6박 7일,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잊힌 이름을 불러내고, 그들의 고통 위에 서 있는 오늘의 의미를 배웠다.

이 길 위에서 만난 모든 이들의 이름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기억 발자취’로 남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우리 세대의 책임과 다짐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유족 김승빈님 소감 발표(홋카이도)



유족 이호열님 소감 발표(니가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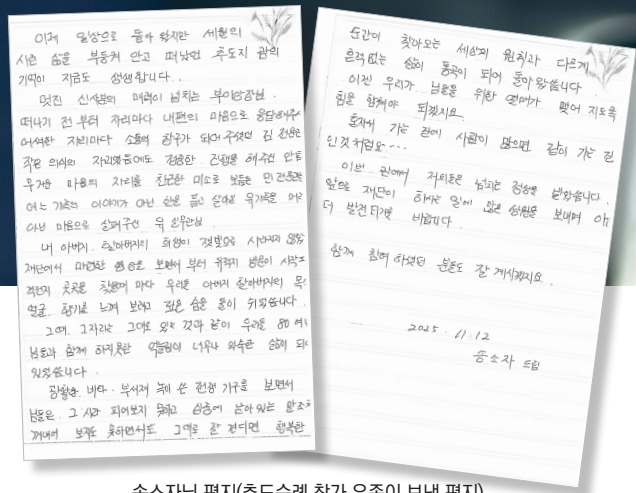
유족 박한나님 소감 발표(오기나와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5년 하반기 국외추도순례

눈물이 왈칵,
늦었지만 이제라도
불러봅니다. “아버지”

역사관 유물홍보팀 김민균



송소자님 편지(추도순례 참가 유족이 보낸 편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을 모시고 3박 4일간 마리아나 제도(괌)로 국외추도순례를 진행했습니다. 평균 연령 80세 참가자분들을 모시고 간 국외 추도순례는 시작부터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꿈에 도착해 이튿날 시작된 첫 일정은 추도순례 참여자 간담회였습니다. 추도 순례에 참여한 모두가 부친 혹은 조부가 어떤 사연을 가지셨는지, 본인이 살아온 삶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담하게 혹은 눈물짓는 모습으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대체로 담담하신 유족의 모습과는 달리, 저의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감히 그분들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지만, 너무 아프고 힘들 것 같은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1 T.스텔 뉴먼 방문자 센터

간담회 후 첫 일정은 'T.스텔 뉴먼 방문자 센터'로 광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역사와 강제동원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 전시된 곳이었습니다. 광이 위치한 마리아나제도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강제동원 피해도 많은 곳 중의 한 곳입니다. 'T.스텔 뉴먼 방문자 센터'는 이러한 광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역사와 강제동원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 전시된 곳이었습니다.



공항 단체사진



30분가량을 버스로 달려 도착한 이곳은 임시 휴관 중이었습니다. 사전답사를 다녀온 담당자 역시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상황, 알고 보니 미국 정부 셋다운의 여파로 이곳 역시 임시 휴관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당혹스러운 가운데 문득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고작 박물관이 행정 사정으로 운영되지 않을 뿐인 것이 이렇게도 당혹스럽고 불편한데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물론 이 정도로는 강제동원의 황망함을 아우를 수 없겠지만, 추도순례를 온 우리에게는 꼭 맞아떨어지는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 아산 비치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너른 잔디밭과 바다가 함께하는 아산 비치였습니다. 맑고 청명한 하늘과 초록 잔디밭, 쪽빛 바다가 아름다운 이곳 한편에 아시아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한 일제의 동굴 진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수풀이 우거져 동굴 진지 안으로는 들어가 볼 수 없었지만, 입구에 세워진 안내문에는 동굴 진지 구축에 광 원주민인 차모르인과 조선인이 동원되었다고 선명히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아산 비치



라테스톤 벙커



추도식



아산만전망대



폰테고원 통신센터

3 라테스톤파크(Latte Stone Park)

라테스톤파크(Latte Stone Park)는 차모르인 주거문화의 상징인 절구통 모양의 '라테스톤'을 복원, 보존 중인 공원입니다. 평화로운 이 공원 한편에도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만든 방공호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차모르어로 쓰인 안내문 중 영어로 된 안내문에는 차모르인, 오키나와인, 한국인이 동원된 내용이 있었으나, 일본어 안내문에는 차모르인의 동원만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4 추도식

다음날 괌 프라자리조트 회의실에서 거행된 국외추도식과 건비치 해변에서 진행된 헌화식. 참가자 모두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 흘리며 넋을 달래 드렸습니다.

5 아산만전망대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 중 목숨을 잃거나 잔혹한 피해를 받은 이들을 기리는 추모공간인 아산만전망대를 찾았습니다. 비록 한국인 희생자의 이름은 없지만, 전투로 희생된 미군 1,880명을 비롯해 민간인 사망자 1,170명 등 총 14,721명의 피해자의 이름이 오롯이 새겨진 이곳에서 전쟁의 잔혹함과 아픔이 전 인류적인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6 콘크리트 벙커

마지막으로 일본군 통신 센터가 위치했던 폰테 고원의 콘크리트 벙커를 방문하며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동을 제외하면 이틀간의 짧은 추도 순례 일정이었지만, 피해자들이 희생되었던 곳을 직접 방문해 눈으로 보고, 유족들의 아픔을, 슬픈 기억을 직접 귀로 들으며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과 유족들의 슬픔을 꼭 기억하며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데에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도순례 참가 유가족

INTERVIEW

이원범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무엇보다 유족분들이 만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심으로 준비해 주셔서 뜻깊은 추도 순례가 되었습니다.



송소자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재단에서 준비한 이런 기회와 노력이 여러분께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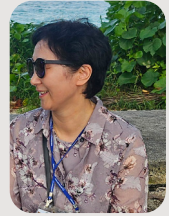
오경숙

3박4일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떠난 여행이 너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재단 측에 감사드립니다.



오진숙

덕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에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추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대자

아버지 덕분에 이런 뜻깊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가슴 아파서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이런 추모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차랑

이런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욱 많아져서 피해자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기회가 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숙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간 여정이지만 너무 슬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같은 상황이기에 형제자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관계자분들의 친절함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철수

일정은 물론 가족같이 대해준 재단 관계자들 덕분에 너무 좋았습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야중

진작 왔어야 했는데, 늦게 와서 한스럽습니다. 아버지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족들도 서글프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한이 풀린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고 싶습니다.



이도수

이번 추도 순례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유족분들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족과 재단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재단에서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윤두

그리운 아버지가 계시던 태평양에 달아 너무 좋았습니다. 3박4일 잘 지내다 갑니다.



박홍종

잘 해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다 갑니다.



아사지노[淺茅野]비행장 건설에 희생된 피해자의 유해, 그 실마리를 찾아서

피해지원국 유족 연구팀 김대월

일본 육군은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사할린과 라페루즈 해협을 방어하기 위해 홋카이도[北海道] 북부 사루후쓰촌[猿払村]¹⁾ 근방에 두 개의 비행장을 건설한다. 종전 후 두 비행장은 목초지 및 목장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비행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 비행장 건설을 위해 일제는 1942년부터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다.

1943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비행장은 제1비행장의 경우 사루후쓰의 아사지노와 하마톤 베쓰[浜頓別町]의 야스베쓰[安別]에 걸쳐 건설했고, 제2비행장은 제1비행장에서 약 20 km 떨어진 사루후쓰 하마오니시베쓰[浜鬼志別]에 건설하였다. 시공은 단노구미[丹野組], 철도공업(鐵道工業)주식회사, 스가와라구미[菅原組], 가와구치구미[川口組] 등이 맡았고, 제1비행장은 1944년에, 제2비행장은 1943년에 완공되었다.

아사지노비행장 건설에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었지만, 그 정확한 인원에는 증언 및 기록마다 300~4,000여 명으로 편차²⁾가 커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목격자 및 피해자의 증언과 매·화장인허증(埋火葬認許證)과 같은 기록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소 수백 명의 조선인들이 이 공사에 동원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비행장 건설에 강제동원 된 조선인들은 다코베야에 갇혀 가혹한 노동과 폭행, 영양실조 등을 감내해야 했으며, 여기에 각종 전염병까지 겹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³⁾ 기록으로 확인되는 조선인 사망자는 90여 명이지만 사망자가 발생하면 공사장 근처에 유기했다는 증언과⁴⁾ 신증사(信證寺)의 주지 나라쿠리오[奈良陸雄]가 비행장 근처의 유골들을 수습하고 조선인 100여 명의 과거장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망자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90여 명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1) 사루후쓰촌은 오호츠크해에 인접한 홋카이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2,600여 명인 작은 마을로 현재는 낙농업과 가리비 양식 등이 유명하다.

2) 이승우,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내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의 유골반환과 법적 쟁점」, 「동북아법연구」 14, 2020, 67쪽.

3) 도노히라 효시히코, 「70년 만의 귀향」, 후마니타스, 2021, 21~24쪽.

4) 평화디딤돌,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12:34 시간 여행자」, 109쪽.

5) 과거장(過去帳) : 절에서, 죽은 이들의 속명(俗名)·법명(法名)·죽은 날짜 따위를 적어두는 장부



아사지노 비행장터와
버스정류장



사망한 조선인들은 마차에 실려 어디론가 이동했다는 증언이 있었을 뿐,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웠으나, 우연히 홋카이도 아카히라고등학교[北海道赤平高等学校]의 교지를 통해 아사지노비행장에서 멀지 않은 공동묘지 주위에 매장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⁶⁾ 또한 매장지로 특정된 공동묘지(화장터)는 1953년 새로운 시설이 생기자, 연고가 있는 유골들은 모두 이장되어, 이곳에는 수습할 사람이 없는 유골만 남게 되었다. 한편, 종전 이후 지속적으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관심이 일본 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2003년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발굴 및 반환을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 ‘홋카이도 포럼’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홋카이도 포럼’은 결성 직후 가장 먼저 아사지노비행장 건설에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주목하였고, 마침내 2005년 ‘홋카이도 포럼’을 중심으로 아사지노비행장 건설 희생자들에 대한 첫 시굴 조사가 시작되었다. 시굴은 한국의 전문가와 ‘홋카이도 포럼’ 그리고 사루후쓰촌 담당자 등이 참여하였으며, 발굴 이튿날 퇴부 등에 심한 노동의 흔적이 있는 온전한 유해 1구를 발견했다.

이 유해의 발견으로 매장지에 조선인 희생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겨났고, 이에 2006년, 2009년, 2010년에 각각 1차례씩 총 3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약 40여 객체의 유해가 발굴되었다. 발굴된 유골들은 일반적인 장례 절차는 물론이고 일본인들의 매·화장 문화 및 방식과도 전혀 다른 형식으로 매장되어 있었다. 유골들은 구겨진 상태로 매장되어 있거나 한 구덩이에 3구의 객체가 매장되어 있는 등 비인도적으로 매장되어 있었다.⁷⁾ 이 같은 매장 형태와 각종 증언 및 기록 등을 미뤄 발굴된 유해들은 아사지노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 희생자로 추정되었다.

발굴된 유골들은 2015년 한·일 시민단체의(평화디딤돌 및 홋카이도포럼) 노력으로 2015년에 한국(파주 서울시립묘지)으로 봉환하면서, 지난했던 아사지노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조사(발굴) 및 봉환이 일단락되었다.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일시민단체의 쾌거였지만, 현지 사정으로 발굴 기간이 짧아 광범위한 조사를 하지 못한 점과 DNA 조사를 통해 유가족을 찾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구겨진 채 매장된 유해⁸⁾



몸은 3구인데 두개골은 하나인 유해⁹⁾

6) 안신원, 「日本 浅茅野 舊日本陸軍 비행장 건설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발굴」, 「比較日本學」 28, 2013, 29쪽.

7) 안신원, 「日本 浅茅野 舊日本陸軍 비행장 건설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발굴」, 29~44쪽.

8) 평화디딤돌, 「역사의 뒤편길을 돌아보는 12:34 시간 여행자」, 110쪽.

9) 평화디딤돌, 「역사의 뒤편길을 돌아보는 12:34 시간 여행자」, 111쪽.



미즈구치 고이치[水口孝一, 90세]씨와의 기념사진

재단은 희생자들의 봉환 10주년인 2025년, 위와 같은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아사지노비행장 건설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조사를 실행했다. 조사자는 2025년 4월 홋카이도 ‘슈마리나이[朱鞠内] 강제노동 박물관’ 관장 야지마쓰카사[矢嶋幸]와 함께 아사지노 제1비행장과 제2비행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남아있는 흔적들을 조사했다. 이후 아사지노비행장 건설 과정과 유해 발굴 그리고 봉환 등을 기억하는 주민들을 수소문해 미즈구치 고이치[水口孝一, 90세] 씨를 만났다.

미즈구치 씨는 2005년부터 아사지노비행장 건설로 희생된 조선인들의 유해 발굴을 도왔으며, 특히 사루후쓰촌이 희생자 발굴에 소극적일 때 적극적으로 나서 ‘아사지노 비행장 건설 희생자 유골 발굴 실행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미즈구치 씨는 90세의 나이에도 당시의 일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어,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에피소드나 유해 발굴 및 봉환 과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즈구치 씨는 당시 조선인이 사망하면 공동묘지에 매장하기도 하였지만 공사장 곳곳에 매장한 사례가 많았으며, 새로운 매장지들을 알려주었다. 이에 조사자는 직접 그곳들을 가 보았으나, 지금은 농지 또는 임야로 사용하여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조사자는 미즈구치 씨와 같이 당시 아사지노비행장 건설 및 유해 발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을 더 수소문해 보았지만 모두 고인이 되어 만날 수 없었다. 이에 조사자는 쓰카사 관장의 도움을 받아 사루후쓰촌정에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내 분위기로 인해 면담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사루후쓰촌의 부촌장 마노 토모아키[真野智章]는 흔쾌히 면담을 수락했다. 알고 보니 부촌장은 2005년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발굴 조사가 있을 때 실무자로 참여했던 공무원이었다.

토모아키 부촌장을 만난 조사자는 미즈구치 씨가 증언한 새로운 매장지에서 유해가 나왔다는 기록이나, 그밖에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문서나 증언 등이 있는지 물었다. 부촌장은 2010년 마지막 발굴 이후 새로운 유골이 나왔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신 발굴 당시 사루후쓰촌정에서 작성한 자체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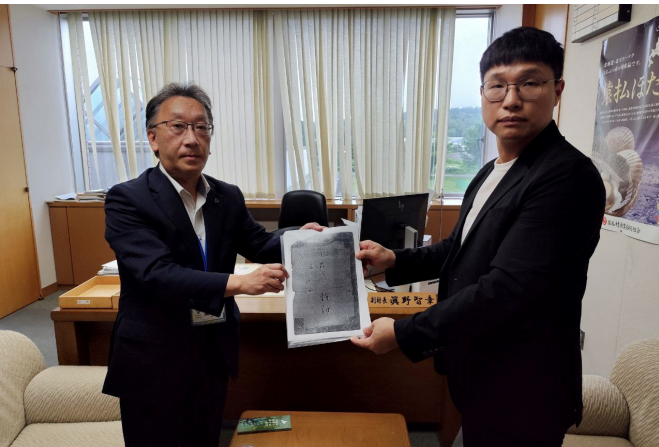
발굴지의 모습과
추도목비에 대한
현화 및 묵념



그리고 대화 중에 토모아키 부총장은 희생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조사자는 부총장의 모습에 용기를 얻어 『매·화장인허증』 제공을 요청했다.

『매·화장인허증』은 해당관청에서 사망자의 매장 및 화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로서 사망원인 및 일시 매장 장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매·화장인허증』을 확보하면 당시 사망한 조선인의 이름과 주소, 사망원인, 매장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유족까지 찾을 수 있어 유해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일본정부가 생산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경우가 드물고 공개된 것들도 오래전에 일본시민단체에서 확보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사자의 요구에 토모아키 부총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제동원과 관련된 일본의 공식 문서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요청하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동행한 쓰카사 관장을 통해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와 관련 연구를 이어가던 중 사루후쓰촌으로부터 『매·화장인허증』과 함께 조선인 유해발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에 2025년 7월 다시 쓰카사 관장과 함께 사루후쓰촌을 찾았다. 토모아키 부총장은 약속대로 『매·화장인허증』과 유해발굴 보고서 등을 제공해 주었으며, 이 밖에도 직접 유골 발굴지와 새로운 매장 추정지 등을 안내해 주었다. 조사자는 『매·화장인허증』 인수에 성공했기 때문에 유족 DNA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여 부총장에게 매장 추정지를 개간하거나 개발할 때 유해가 나오면 재단에 연락을 줄 것을 부탁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매·화장인허증』을 제공하고 있는 사루후쓰촌의 부총장
마노 토모아키[真野智章]

제공받은 『매·화장인허증』에는 67명의 조선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매장지, 화장지, 신고인주소와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조사자는 유족 확인 및 DNA확보를 위해 『매·화장인허증』을 행정안전부에 제공하였으며, 현장조사한 내용과 더불어 『매·화장인허증』에 대한 분석을 2025년 자체 유해조사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재단 자체적인 유해조사와 일본 지자체를 통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국외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의 규모에 비해 유해조사는 그 1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력에 비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인긴 하나, DNA 대조를 통해 2024년 타라와[タラワ] 환초에서 봉환된 故

최병언 님의 사례와 같이, 유족 DNA만 확보하고 있다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재단은 끊임없는 유해조사를 통해 희생자의 정보를 찾고 유족 DNA 자료를 확보하여 그 기적의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것이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일 것이다.